

[참가자 명단]

	BK 사업	조교	장학금	연구지원	연구보조 등	기타	부채
1	• BK(1년, 월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부처 조교(1년, 월급제) • 방조교(1학기, 장학금 1회) • 연구소 조교(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재단 (2년, 월 지원금) • 외부재단 연구조사조성금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간사(학회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총학생회(2학기, 등록금 면제) 	-
2	• BK장학금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조교(과사무실 전일/반일 조교, 장학조교, 입시조교, 외국인튜터조교 등) • '글쓰기' 강의 튜터 조교 • '글쓰기' 강의 행정 조교 • 방송통신대학교 TA조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 연구진흥사업 논문 게재비/심사비 지원 • 대학원생아이디어인큐베이팅사업(논문/학회회발표등에따른장학금)100만원-1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유형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연구원 석사보조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소 • 학원 (3년) 	-
3	• BK(4년, 월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사무조교(4년) • 글쓰기 TA조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재단 해외연수(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학자금대출 1,000만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K(1학기, 월 지원) • 해외연수(6개월) • 단기연수(학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사무 행정조교(편했음, 4년) • 학과조교 (편의를 많이 봐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장학금(200만원-일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유형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 알바 	학자금대출 1,000만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조교(2년 반, 행정 업무 처리) • 거점국립대 학점교류 TA조교(1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학금(50만원, 등록금에서 차감)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총무 간사 (월 30) • 학술지 편집 간사(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6개월) 	-
6	• BK(1년, 월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조교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1년) 	학자금대출 2,000만원
7	• CORE(2년, 학기별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조교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성적장학금(30~80만원, 석사 1회, 박사 4회) • 학기별 연구지원금(석사, 250만원, 매학기) • 박사회장장학금(박사, 200만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K 융복합학술연구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산학협력단 과제 연구보조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조교(2년)(학과) • TA조교(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조교장학금(석사) 등록금 전액 • 연구보조장학생(박사, 등록금 절반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사감 • 학원 (2년) • 카페 (3학기) 	학자금대출 2,800만원

Part 1. [증언] 자본의 바깥, 생존의 기록

◎ 인문학 대학원생의 스불재와 현타 : ‘전일제 대학원생’의 기쁨과 슬픔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되기 전, 돈으로 인해 궁핍해질 것은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스불재’ 혹은 ‘누칼협’이겠죠.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포기하고 들어온 것임에도 ‘현타’는 늘 새삼스럽습니다.

“내 글 실으면서 돈까지 내고, 나는 무슨 쓸모를 위해 글을 쓰나 싶은. 공부를 해서 실적이 되어야하는데 그 실적은 돈을 내야 채울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의 경우 스스로 결정한다고 느꼈는가, 아니면 주어진 자리 안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느꼈는가? 조교·간사·사업 참여 같은 기회는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제안된 것에 가깝지 않은가? 만약 거절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나? 그렇다면 그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일까?”

그런데 만국의 ‘노동자’ 중 이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또 얼마나 될까요. 이 ‘현타’ 또한 ‘스불재’일까요?

[각자의 답변]

- 학교에서 ‘선배와의 만남-멘토링 행사’를 종종 진행한다. ‘중격마’가 중요하다지만 내 마음은 늘 꺾인다. 현재 연구원 신분으로 있어 ‘전일제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재단 지원을 하려면 퇴사해야 한다. ‘일하는 대학원생’의 모순, 그러나 스탠다드가 된 ‘전일제 대학원생.’ 대학원생들 80퍼센트 이상이 일 하는 대학원생인데. 오히려 전일제 대학원생 찾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는 구조. 기준은 여전히 ‘일 안 하는 대학원생’이다. 후학양성이 목적인 사업이 현실기준에 맞게 되어있는가.
- ‘현대문학자’들이 모인 다른 연구과(일문과, 중문과 등)만 봐도 직장인 대학원생의 수가 월등히 많고 나이 폭도 다양하다. ‘국문과’라는 대단히 문제적인 학제(왜 ‘한국문학과’가 아닌가) 아래 엘리트식으로 연구자를 양성할 때, 즉 연구자라는 형태로부터 ‘생계’가 배제될 때 그로부터 생산되는 지식, 앞에서도 ‘생계’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앞은 무엇을 위한 앞인가.
- 전일제 대학원생의 요건이 모호하다. 교육조교 ‘장학금’ 명목이지만 여전히 노동을 강요받는다. (고용노동,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

는) 스탠다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박사수료 이후 학교와 거리를 두고 있다. 졸업만 빨리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전일제를 요구하기 때문. 학원일과 전일제를 병행한다. 공부와 관련된 '일' (동시대 평론, 비평 등)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불가능하고 나는 연구적 글쓰기를 원한다. 졸업만을 바라보는 중.
- BK의 전일제 학생 기준은 '1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를 전제하고 있다. 이걸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공부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지 않느냐' 라지만 공부를 얼마나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 '대학원생이 너무 욕심이 많지 않은가'에 담긴 기대되는 이미지, 그 길을 지나온 교수들은 검소, 몰두 등의 '자세'를 요구하지만.
- '전일제 대학원생'이라는 요건이 결국 대학원생을 '착취'하는 데 일종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나.

○ 토론 : 우리는 어떤 자본을 보유하려 하는가

자본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기도 했고, 코인 관련 소설이 발표되기도 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기본소득, 커먼즈 같은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자본'은 '돈'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대학원생'을 '모순'이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공부와 자본이 양립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더 심화되는 요새입니다. 연구 노동을 통해 각자가 추구하는 '부'는 어떠한 '부', 어떠한 모양의 '삶'이신지요.

[각자의 답변]

- 대학원생의 노동이 부를 축적해야 하는가- '입에 풀칠' 정도는 원한다. 물론 대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보다는 모으지 못하겠지. 우리의 노동은 쟁취 목적보다는 생계 목적이. 그러나 푼돈도 벌지 말라고 하는 듯한.
- '평균적인 삶'을 위한 부의 축적을 원한다- 차 한 대 사고, 지방에 집도 사고 (짹짹)
- 생계를 위해서 공부 바깥의 '노동'을 선택하면서 공부를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 이 부담은 미래의 나에게 지우고 있다. 선택의 문제에서 불안정성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
- 586세대 연구자의 '혁명'이라는 굉장히 큰 자본, 90년대 학번들은 문화론 연구를 시도한 이들-사회적으로든 학술사적으로든 자신만의 영토를 만들고 쟁취해낸 '상징자본'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축적하기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상징자본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 ‘떡고물’이 남아있을까.

-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
- 주거, 교통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해 계속 축적해야 하는 부. 만화책사는 데 쏟아 부은 돈이 꽤 된다.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료의 확보라든지, 논문을 쓰기위한 공부, 책 값, 자료구입비 등등.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아닌가. 개개인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연구의 유지가 가능할까. 연구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비용, 투자금의 비중이 너무 커져가는 것 같다.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 사회주의 문학을 공부하는 인텔리겐차로서 ‘부’에 대해 알레르기처럼 죄책감을 느낀다.

Part 2. [진단] 연구인가 노동인가

◎ BK 지원금은 ‘장학금’이어야하는가 ‘임금’이어야 하는가

대학원생의 '노동'과 그에 주어지는 '자본'의 명목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장학금인지 임금인지, 장학금이라는 '포상'의 형태로 주어질 때 그것이 야기하는 적자생존 경쟁 생태계와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행정업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장학금'으로 착각하며 발생하는 여러 부조리도 공유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대학원생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BK 사업입니다.

“BK 수혜를 받아본 적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며—1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준다고? 지급 절차 중 왜 주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는가. ‘배제’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는 다 해야 하는 것이고 논문은 다 써야하는 건데 (쯔쯔쯔). 장학금 지급에 따르는 의무는 있다지만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사고의 층위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

“BK 분배 방식의 차이—지도교수가 공정하게 분배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학과 전체에서 실적으로 점수 커트라인을 형성해 공표하거나, 알음알음 기준을 추측.”

“장학금이니까 고루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적 위주의 ‘임금’으로 주어지고, 따라서 배제되는 이가 재생산된다.”

[각자의 답변]

- BK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거칠게 말해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하나는 장학금은 받지만,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 나머지 하나는 나라에서 돈을 지원 받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지식 ‘노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람. 파트3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 혹은 국가사업은 우리의 정체성을 ‘조각’ 내지만,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목도할 수 있었다. 선택적 ‘노동’을 취한다고 해야 할까? 장학금을 받아야 할 땐 이게 있어야 ‘노동’으로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장학금을 받을 땐 우리의 연구는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들.
- 임금과 장학금의 성격이 모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분명하다. 박사과정 시작과 함께 BK를 받으며 “BK 개꿀—좋다”고 말하곤 했다. 매월 지급 장학금이라 실적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이후 BK사업이 탈락된 뒤, 실적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 공동체의 기회창출을 막았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일절의 요구나 압박이 없었기에—차라리 그것이 ‘포상’이 아니라 ‘연구성과’를 간주하고 지급한다는 것

을 환기시켜줬다면 연구자로서의 자의식 확립이 가능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

- 명목상 장학금, 국가에서 160정도 받으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식이 개인적으로는 있다. 그러나 ‘꼰동이네’라는 만연한 생각. 선배들이 성과를 내지 않아 BK가 탈락된 경험이 나도 있다. 이것은 내 ‘일’이다. 이것이 연구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득도 있겠지. 너무 안일하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 연구자에 대한 반감도 생겼다. 엄청난 특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데 대하여.
- ‘세금’을 떼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일률적으로 관리와 통제가 들어간다는 의미. 그것과 각자 장학금에 대해 느끼는 다른 인식에 대한 유비랄지, 투박한 접속 등을 이야기해보면 보다 논의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 이공계, 예체능은 노동 자체가 연구로 환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문학은 사고의 과정 자체가 연구의 일부. 이것이 노동인지, 그로부터의 실적이 노동의 결과물인지 불확실하다. 우리가 우리의 연구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문제이지 않을까. 연구를 위해서 쏟아 붓는 시간 자체가 기록되거나 가시화되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결과물로 인정하기가 스스로조차 어렵다. 그렇기에 자본의 투입에 있어 당사자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중심 없이 흔들린다. 이 중심을 잡는 것은 개인들의 몫인가, 개인의 몫으로 남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나의 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는 하다.)
- 이공계가 세포에 먹이 주듯-우리도 사료를 보면서 멀리 연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공계의 ‘노동’처럼 우리의 공부가 ‘노동’이 될 수 있을까.
- 문화자본을 기획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대문학 근대문학 연구자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인의 연구가 지금 당장 문화자본으로 치환될 수 있을지는 연구자 스스로 알기 힘들다. 국가나 학교가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연구자가 불안을 떠맡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대문학 연구도 노동으로 충분히 치환되어야 한다. 개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체성에 불안을 느끼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하는 노동이 치환되고 가시화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 보론 : 자본화되어가는 연구장의 모든 행위 : 대학원생의 (비)자발적 동원

결국 임금과 장학금 사이 관계의 문제에는 '대학원생-강사-교수-(그리고 더 소급하면 연구재단/국가?)'라는 구조가 기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연구자가 아니라 정치인 혹은 교수의 심부름꾼이 되어가는 데 대해 다소 도발적으로, 익명을 제안한 제도팀을 포함해 참석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학원생으로서 어찌 되었든 학계제도권 혹은 연구사업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연구든 노동이든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장에서의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게 ‘자본화’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양적인 성과기준—한 학기에 논문이 3-40편 쏟아지는 학교가 있다. 성과기준의 문제. 학교별로 경쟁이 들어가지만 잘 사용되지는 않는데. 말 그대로 연구자의 정체성 자체가 상실되는 것 같다.”

“동원의 매커니즘 —혁명을 하자 하면서도 동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얼마 전 해외에서 오신 학자를 모시면서 한국 대학원생이 ‘접대’를 위해 동원되는 과정을 물으시더라. 장학금 받으니까 해야지 하는 생각. ‘나의 책임’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

“학술대회의 풍경—이틀 동안 학술대회를 한다면 첫째 날 교수들이 발표하고 만찬 진행. 둘째 날은 교수들이 떠나고 대학원생끼리 남아서 발표를 진행한다. 그럴 때면 기본이 확 나빠진다. 우리의 존재는 만찬자리—자본의 조달을 위한 것인지. 과연 학술대회는 학술교류를 위한 자리인가.”

“BK연합학술대회가 있었다. BK사업 시행 학교끼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자리. 거기서 ‘그들만의 잔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BK에서 탈락된 학교의 학생들은 접근도 못하고 서로의 토론 발표에 관심도 없고, 성과를 자랑한들—BK사업 담당자가 와서 칭찬할리도 만무하고 굉장히 소모적인 행사, 사업임을 절감했다.”

[각자의 답변]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노동도 자본도 비가시화되는 공간이 학교이므로. ‘학교’의 모든 행위가 역설적으로 자본화되는 것.
- 한국 같은 경우 동대학원 진학 수가 유독 높는데 타대생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만남 자체도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해롭다.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 ‘연구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재분배’가 공정한가. 재단으로부터도, 각종 사업으로부터도 연구장에 일정 자본이 유입되지만 이 재분배 과정이 공정한가, 누가 그렇다고 답할까. 사업 ‘프로포절’을 위한 입장차, 작은 차이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
- 대학원생들의 동원은 ‘만연’하다. 나와 친한, 돕고 싶은 선생님의 학술대회가 물론 있고, 순진한 마음이지만 ‘연대’하고픈 마음이 동원의 고통을 경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장의 모든 행위가 자본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연대가 사라진다. 공동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개인의 고통을 강화한다.
- ‘당연직 간사’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사람들을 아는 것, 인맥 자체가 자산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학회 나가서 무엇이래도 더 해보려고 한다.

- 학술대회 구경을 갔다가 세팅을 돕고 과자를 깔고 있던 나. 시켜서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반 농담으로 BK 실적에 잡히나요 하고 물어보았다. 선의의 교환가치에 자본이 개입되었을 때의 문제.
- 실제로 우리 학교에선 학술대회 행사 참여 횟수가 BK를 위한 실적 등으로 환산되고 있다.
- 우리학교는 자본이 돌지 않는다. 호출-진행비로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동원이라고 해본 적은 없다. 자본이 아예 돌지 않으니까 그런 감각도 없다. 그런 분위기였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자본화되는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안에 내포된 문제를 연구자 개인에게 돌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 ‘신뢰자본’을 쌓아나가야 하는데 연구 외의 노동이 (선의에서 비롯되든 자기 자신의 자발에서 비롯되든) ‘교환가치’로 수렴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

Part 3. [성찰] 내면화된 자본, 조각난 정체성

◎ 성과는 얼마나 가시화되어야 하는가 : '지표'의 쾌감과 부끄러움

연구자의 조각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면서 BK, HK, CORE 같은 사업의 성과 기준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서 놀라면서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계획들이 제시하는 '성과지표'가 내포한 이상적 대학원생의 모습.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자의 구체적인 경험들('연명의 착시'라든지, 실적 압박 속에서 코스웍을 마친 뒤 극심한 방향이랄지)도 공유해보았습니다.

세션 내부에서 다소 충돌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생 혹은 연구자가 노동으로서 연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성과지표'라는 것에 의해 제한되고 전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활동이므로), 그런데 또 그렇게 노동화될 때 연구의 범위나 자율성이 축소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민이었는데요.

이 가치전도가 대학원생만의 괴로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령 정량 실적으로 허덕이는 신진연구자들이 그렇겠죠.

실상 인문학 대학원생은 어떤 면에선 일반 사회인 회사원보다 굉장히 보호받고 있다, 그들이 번 돈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인텔리겐차 연구자를 마냥 노동자로 봐도 되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답변]

- 인력양성사업은 국가 차원의 투자이고, 성과지표 역시 대학원생 개인의 서사를 넘어서는 더 큰 담론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를 가시화하고,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와 생활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성과지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려되는 지점은 연구자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의 가치와 방향이 사전에 조정·선별되는 주객전도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 유리한 주제와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장기적인 문제의식과 실험적인 연구는 제도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자기서사는 단순한 냇두리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연구 노동의 조건과 시간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과지표를 대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성과지표 논의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보조적인 논의의 층위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자가 단기 성과

에 매이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의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 임금 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인문학 대학원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정에 대한) 부채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친구들이 하는 역할과 비교할 때 느껴지는 사회에 대한 부끄러움. 일이 주어지면 뿌듯해하면서 하게 된다. 논문 쓰는 것은 돈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보니 행정적 업무를 할 때 오히려 쾌감이 있었다. 이 근본적 부끄러움과 그 원인을 생각하다보니 연구로서 사회적 개입을 한다는 것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문계 대학원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직 석사과정이라 연구자로서 정체성은 없지만 성과기준 리스트를 채워 넣으며 연구자라는 '착각'이 들었다. 요즘에는 석사수료를 하다보니 BK가 끊기고 큰 벽이 생겼다. 아직 연구자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현실인식이 들었다. 그래서 BK사업이라는 것은 예비연구자에게 연구자를 체험해보게 하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지만.
- B유형 등이 되었을 때 경제적 안도감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회적인 안도감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부채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실적을 여러모로 내려고 노력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실적내고 했던 것이 연구 자체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면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BK를 받아오다보니 당장 할 수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 아예 안 받으면서 일부러 생활해본적도 있다. 아예 신경 안 쓰면서 살아봤던 시간—연구자로서 정체성 수립에 이 시간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객관성에 대한 강박: 과학과 논리라는 강박적 준거 속에서, 문학 연구자가 생산하는 문장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서의 '지식'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점성술'에 불과한지 끊임없는 의구심에 시달린다.
- 이분법적 갈등: 시연구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연구장은 과학에 대한 르쌍티망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리하여 '문학적 특이성'을 단호히 고수하거나, 반대로 '데이터와 실증'의 세계로 투항하는 이분법적 선택지 중 하나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지식의 소외: '실증/논증'과 '사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연구에 대한 자기 확신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문학 연구의 지속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는가"

Part 4. [후일담] 작은 결론들, 못 다한 이야기

- ▶ K-어쩌구, 한국형 어쩌구가 학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포스트-성장, 포스트-자본주의의 어젠다를 어떻게 그 앞에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자본 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비교문학 연구자들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 고민해나가고 싶다.
- ▶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결국 우리의 존재 방식은 '세속에 남은 수도승'쯤 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지 않을까. 지금의 연구장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지속 가능한' 도 닦기와 떼땃한 도인의 '재생산'을 허용하는가.
- ▶ 연구자에게 자본과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얼마 전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한 학생이 기초과학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에게 던졌다. 요는, 기초과학은 돈이 되는 학문이 아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다음 세대에 진가가 나올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나 의료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기초 과학,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보다도 쓸모 있는 기초과학도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한다. 그러나 인문학 연구자들은 인문학 연구를 너무 '신성시(?)'해서인지,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인문학 연구자는 좌파가 되어야 한다는 낭만적 환상(?) 때문인건지... 연구를 진척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자본을 현명하게 이용해먹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훌륭한 후학들을 양성할 방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한편으로 대학원생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발언의 공이 돌아온 점도 재밌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 역사상 가장 대접받고 공부하는 국문과 대학원생이 아닐까. 다만 이것을 대학원생 처우와 연구 생태계 구조 개선의 결과로 봐야할지, 혹은 이 학술장이 어떤 임계에 도달했다는 말기적 증상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 ▷ 문학은 결코 ‘신성’하거나 ‘낭만’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문학하는 ‘사람’이라는 건 더 그렇다. 다만 스스로의 모순을 읽어내는 작업을 문학을 통해서 하고 있다. 자조가 농담이 되는 순간을 좋아한다. 그 중 하나가 이번 기회였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길어지면 생애가 된다. 그 또한 문학 안에서 하고 싶(있)을 뿐이다.
- ▷ AI혁명 이후 유례없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가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압박감과 조급증 속에서 결국 우리는 자본과 제도를 부정할 수도,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도 없는 자리에서 공부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대문학자’의 태도만은 놓치지 않고 싶다.
- ▷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연구자로서의 무구한 태도나 순수성이라기보다, 연구를 연구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인지도 모르겠다. 연구가 곧바로 자원의 배분 방식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붙들어 두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인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연구와 자본이 겹쳐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보고 싶었다.
- ▷ 이 세션에 참여한 동기는 ‘불만’이었다. 인문학 연구를 ‘등한시’하는 사회 풍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대학원생에게 무관심한 학교와 제도 등 쌓여왔던 ‘불만’을 “폭로하리라!”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참여했으나, 결국 폭로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 밖에 없었다. ‘단표누항(簞瓢陋巷)’하면서 살 수 있는 연구자가 얼마나 될까. ‘선비’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문학연구자 지망생’의 주변 세계 그리고 그 자신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온한 존재가 아닐까. 내 삶에서 자본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부를 축적할 욕심도 없다. 하지만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문학을 향유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욕심은 조금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